

영남일보, 바둑리그 사상 첫 2연패

'마지막 출전' 신성건설 꺾어...윤준상·허영호 MVP 다름

우승후보 광주 KIXX 이창호·박정상 부진 '꼴찌' 불명예

영남일보가 챔피언결정전에서 신성건설을 꺾고 한국바둑리그 2연패를 달성했다. 광주 KIXX는 꼴지의 불명예를 안았다.

리그 2위로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영남일보는 지난 13일 열린 3차전에서 11시간이 넘는 레이스를 벌인 끝에 신성건설을 3-2로 물리쳤다.

이로써 영남일보는 챔피언결정전 종합전적 2-1로 우승했다. 신성건설은 2년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승리의 선봉장은 새내기 강유택이었다. 2차전과 마찬가지로 선봉에 선 강유택이 상대팀 1지명 박영훈을 잡으며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강유택은 초반에 잡은 우세를 그대로 승리로 연결시켰다.

2차전 1국에서 좋았던 바둑을 통한의 반집패로 분위기를 삼켰던 강유택이 상대 1지명을 잡아준 덕분에 영남일보는 일찌감치 우승을 향해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영남일보 윤준상은 1국의 승리에 탄력을 받아 이날 오후에 이어진 2국에서 신성건설 복진석을 역시 불계로 누르고 팀 우승의 조약기에 들어갔다.

상대전적에서 8승3패로 월등히 앞서 있던 윤준상은 또 한 번 복진석을 이겨며 '복진석 천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이날까지 올해 바둑리그에서만 세 번 맞붙어 윤준상이 전승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반면 개막전 우승 후보였던 광주 KIXX는 4승10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꼴지를 기록, 체면을 구겼다. KIXX는 조훈현과 이창호, 박정상, 송태곤, 이성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했지만 전반적인 부진으로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팀의 1~2 지명 선수들이 이창호와 박정상이 의외로 부진에 빠져 줄곧 리그 하위권을 맴돌았다.

우승팀 영남일보는 2억7천만원의 우승수금을 받으며, 2위를 차지한 신성건설은 1억6



영남일보가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에서 우승, 2연패를 달성했다. (사이버오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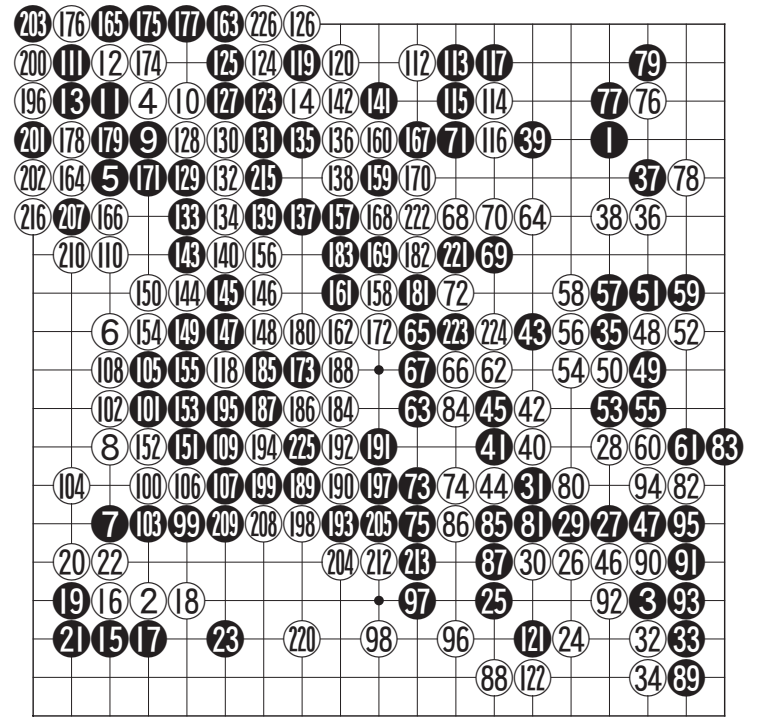
천만원의 준우승 상금을 받는다. 3위는 충북 제일화재가 차지했으며, 경북 월드 메르디앙이 그 뒤를 이어 4위에 올랐다. 제일화재와 월드 메르디앙은 각각 7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순위 상금으로 받는다.

이로써 지난 4월 막을 올려 9개월 동안 각축을 벌인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는

마침 뒤 열리는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시상식은 23일, 우승팀부터 4위까지 팀별 시상과 감투상, 신인상, MVP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갖는다.

MVP 등 특별상은 사전에 대회 운영본부에서 기자단투표와 인터넷 팬투표를 통해 뽑는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완벽한 콤비 플레이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페어부 결승전 총보 (1~226)
白 함영우·송예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페어바둑은 여류기사가 귀했던 예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방식으로 돌이 환관을 이루어 두던 연기바둑(복식)과 비슷하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는 여류 바둑인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대국방식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세계 페어바둑대회를 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페어기전이 열리고 있으며 우승팀이 세계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전국체전에는 바둑종목이 참가하면서부터 페어바둑이 주요종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내년부터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이 된다면 더욱더 페어바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 분당, 수원 등 여성바둑이 강한 경기도는 언제나 페어바둑의

우승후보로 꼽힌다. 작년의 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결승에 진출하여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남팀이 대불대학교의 바둑학과 창설에 힘입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한국기원의 연구생 출신인 아마최강자 함영우군과 여류강자 송예슬양이 한 팀을 이뤄 페어바둑에 출전했으니 당연히 우승후보였는데 과연 기대대로 강경 경기도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흑의 패인은 초반 전투에서 우변을 통과당함때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남팀이 보여준 실수없는 완벽한 콤비플레이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백 226 수 끝, 백負け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돌부처 이창호, 과연 명불허전

완벽한 마무리...中 공지에 누르고 춘란배 결승 올라



이창호는 지난 11일 중국 강서성 난창 등왕각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공지에 7단을 195수 끝에 불계로 누르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8강전에서 완벽한 마무리 솜씨를 보여줬던 이창호는 이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끝내기 과시했다. 이로써 이창호는 4승2패의 역대전적 기록, 공지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창호 9단과 저우허양 9단이 맞붙은 또 다른

준결승전은 창호가 144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선착했다. 이로써 이창호와 칭하오는 통산 9번째 결승무대를 갖는다.

두 기사의 역대전적은 이창호가 21승8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엔 창호가 4승2패로 앞서고 있어, 결승전은 혼전이 예상된다.

이창호는 11회 삼성화재배 결승 3번기와 9회 농심심리만배 3차전에서 칭하오에게 연거푸 졌다.

춘란배 결승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춘란배 최다 우승자인 이창호가 이번 결승에서 칭하오를 꺾는다면 2003년, 2005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얻는다.

지난 1999년 시작한 춘란배는 한국이 4회, 일본이 1회, 중국이 1회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 가전업체인 춘란그룹이 후원하는 춘란배는 각자 3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 7집 반이며 우승수금은 15만 달러(한화 약 2억2천만원), 준우승수금은 5만 달러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최원용 "이젠 通幽라 불려다오"

<통유=6단의 별칭>

박소현 꺾고 승단...은소진도 5단 승단

최원용이 '바둑에 그윽한 경지까지 이른다'는 통유(通幽·6단의 별칭)에 올랐다. 최원용은 지난달 열린 제14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예선 2회전에서 박소현 2단을 꺾고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 1984년 전북 임실 출생인 최원용 6단은 권갑용 7단 문하로 지난 2000년 제8회 입단대회를 통해 프로에 입문했다.

지난 2006년 제2기 한국불가정보배에서 4관

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이세돌 9단에 패해 준우승을 머물렀다. 또 2002년 제7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2004년 제9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에도 진출한 바 있다.

이밖에 은소진 4단이 '전투·기교를 띤 지혜를 쓸 줄 안다'는 용지(用智·5단의 별칭)에 올랐고, 박정환 2단은 '비로소 싸우는 힘을 갖는다'는 투력(體力·3단의 별칭)에 이태현 3단은 '일견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움직인다'는 약유(若愚·2단의 별칭)에 오르는 등 모두 4명의 기사가 승단했다.

/이종대기자 jilee@

백홍석 심단전 4강 선착

8강전서 박정상 9단 꺾어

백홍석 6단이 제4기 원익배 심단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백홍석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이 대회 8강전에서 박정상 9단을 219수 끝에 불계로 물리치고 4강에 선착했다.

백홍석은 제2기 심단전 준우승을 차지했고, 3기 대회에서도 무난하게 4강에 올랐기에 이 대회와 인연이 깊다. 지난 6월 시작된 제4기 원익배 심단전 통합예선에는 한국기원 소속기사 200명이 출전해 39명의 본선 진출권을 놓고 각축을 벌여 본선 8강 진출자를 가렸다.

결승 3번기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며 돌을 쥐어서 출력을 맞춘 사람이 흑백을 선택한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네오위즈게임즈 '피망바둑 2.0' 오픈

네오위즈게임즈가 최근 피망바둑의 신 버전 '피망바둑2.0'을 오픈했다.

이번 '피망바둑2.0'은 관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기존 1회만 가능했던 손자 맞는 배팅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유저들은 1차, 2차, 찬스 배팅으로 나눠 대국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추가 배팅이나 반대 배팅을 할 수 있어 보

다 긴장감 넘치게 관전에 참여할 수 있다.

중간에 입장한 관전자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돌려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경기 진행을 설명해주는 참고해설 기능이 추가됐고, 대국을 관전하면서 가상으로 수를 두는 놓아보기와 여러 유저들과 토론할 수 있는 북기 기능을 개선했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명성공인증개사
016-611-3424
011-625-0510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포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
안경점/호프전문점/찜닭
점포와 보도블록 300㎡ 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
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호남방으로 생각을 이동하라!
호남방
아파트·주택·전문증개업체
☎062-383-3007
www.honambang.com
(주소창에 호남방)

아파트를
파실 때나
사실 때에는
즉시 전화하세요! 바로계약!
사랑방·벼룩시장
무료광고!!

광고비는 호남방이 부담합니다.
호남방공인증개사
(광주본점)

수완지구

분 월드 메디컬 센터 양
09년, 3월 준공

- 수완지구 아파트 10,000세대 입구
- 병원 의원 최고위치
- 대단지 아파트 및 버스 정류장 옆
- 이비인후과 임점 확정
- 약국 특별 분양

임 송원프라자 대
08년, 12월 준공

- 버스 승강장 옆
- 1층 : 편의점, 약국, 부동산
- 2층 : 병원, 한의원, 사무실
- 3~5층 : 학원, 독서실, 사무실

☎ 062) 952-1033, 010-7723-1033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 제주도 제주시 노령동 741번지
◆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안라산 등반** + 1일 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방림원, 일출랜드, 승미제점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9시 또는 14:30출발) - 호열1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 호열1박
- 3일째: 제주관광 - 제주항(17:30) 출발 (단, 일요일은 16:30 출발)
★출발일: 매일 출발(단, 둘째날 토요일은 제외)
-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인질료, 주차료
※ 성수기 기간 2만원 추가

고흥(북동)출발 "북동투어" 85,000원
★일정 - 1일째: 북동 남해고속터미널(9시)출발 - 호열 1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 호열 1박
- 3일째: 제주관광 - 제주항(17:10) 출발
★출발일: 매일 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 금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인질료, 주차료
※ 성수기 기간 2만원 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0,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 (주중+주중) 179,000원 (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 상가 기간 별도 문의

"목카렌트카투어" 103,000원
(4인 기준)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14:30)출발 - 제주항 도착 - 호열 1박
- 2일째: 자유관광 - 호열 1박
- 3일째: 자유관광 - 제주항(17:30) 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

문의: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